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마약상에서 복음 전도자 된 인도네시아 형제...박해받으며 전도**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으나 마약상이었던 한 인도네시아 형제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 전도자가 돼 믿음 때문에 구타를 당하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한국순교자의소리(VOM)가 최근 전했다.

한국VOM에 따르면, 메흐프리(21. 보안상 성은 미공개)는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으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쫓기다 추적을 피하려고 성경 학교에 등록했다. 그는 당시 성경 학교에 다닐 때 학생들에게 마약을 팔아 돈을 벌 생각만 했다고 한다.

메흐프리는 몇 개월을 성경 학교에서 보낸 후 3년 동안 코카인과 엑스터시(마약의 일종)를 판매하다가 체포돼 감옥에 갇혔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을 심방한 목사님을 통해 성경책 한 권을 받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됐다.

아버지가 힘들게 마련한 돈으로 보석금을 지급하고 석방된 메흐프리는 한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선택했던 성경 학교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다.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는 급진적인 무슬림의 본거지이자 복음 사역을 하기 어려운 곳으로 알려진 필리핀의 민다나오섬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이후 메흐프리는 결혼 후 아내와 아이와 함께 무슬림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하루에 5-10명의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느 날 전도하다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던 메흐프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그의 2살짜리 딸이 아빠가 부상 당한 몸으로 도착한 것을 보고 “저를 위해서라도 주님을 향한 열정을 계속 간직해주세요”라고 아빠에게 말했다.

메흐프리는 “박해를 기독교인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예수님이 모범이고 본보기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직면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사도행전 20:24)

하나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나 주님과 상관이 없이 살던 한 사람을 친히 만나주시고 이제는 전도자가 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날마다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과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증인의 삶과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십자가 복음이 인도네시아의 많은 무슬림에게 들려져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가 온 열방에 전파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1,003명 세례받아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강우일 목사)에서 13일, 새해 첫 진중 세례식이 거행, 1,003명의 장병이 세례를 받았다. 데일리 굿뉴스에 따르면, 이번 세례식은 연무대군인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해 군종 목사를 파송한 10개 교단이 연합해 개최했다. 이날 김의식 예장 통합 총회장은 “흔히 우리는 군 생활을 인생에서 허비하는 시간으로 여기지만,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며 “신체적 훈련과 정신적 단련, 영적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군 선교관계자들은 이번 연합세례식을 시작으로 군 선교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로마서 6:4)

하나님, 군 선교를 위한 연무대군인교회를 70년 동안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해 첫 세례식에 참여한 1,003명의 장병을 축복하오니 세례에 참된 믿음으로 화합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여러 통로로 복음을 듣게 된 이들이 인생 중에 가장 의미있는 만남을 얻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자아에 대해, 또한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에 대해 눈을 뜨게 하옵소서. 연합하여 군 선교를 섬기는 한국교회가 다음세대의 복음화를 위해 무엇보다 기도로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가 세워지는 역사에 동참하게 하소서.

▲ 인도 마니푸르 기독교인들···8개월 넘게 난민 생활 중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 쿠키족 부족의 기독교인 수만 명이 폭력이 시작된 지 8개월 넘게 난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최근 CP가 전했다. 원주민 부족 지도자 포럼에 따르면 2023년 5월 3일부터 토지 권리와 정체성을 둘러싼 쿠키족과 대다수가 힌두교도인 메이테이족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소 158명이 사망하고 약 4만 1,000명의 쿠키족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이들 이재민 중 최소 2만 1,000명은 쿠키족이 거주하는 추라찬드푸르 지역에 있는 110개 이상 난민 캠프에 머물고 있다. 추라찬드푸르에 본부를 둔 농촌 여성 향상 협회에서 일하는 메리 베스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전문 의사와 필수 의약품의 부재로 인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 80명의 이재민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전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시편 56:3,13)

하나님, 경찰의 통제가 사라지자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비참함을 파푸아뉴기니의 영혼들이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소요가 멈추게 하소서.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전부로 얻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을 따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중국 정부, 포상금 약속하며 지하교인 신고 장려해



지난달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민족종교사무국’은 지하 교회 활동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불법 종교 활동 신고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한 여성이 은밀하게 기독교 활동을 하는 한 남성을 공안국에 신고하는 과정이 담겼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는 “광둥성 당국은 몇 해 전부터 시민들에게 지하 기독교 활동을 신고하라고 촉구해 왔고, 불법 종교 활동을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2019년부터 펼쳐 왔다”며 “외국 기독교 단체와 종교 활동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액수가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국 VOM은 광저우에서 촬영된 영상을 통해 외국인들이 주최한 ‘영어 비밀 모임’에 참석한 한 중국인 남성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 모임의 구성원들은 희미한 불빛 아래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영상에서는 그 ‘영어 비밀 모임’이 외국인의 불법 종교 활동을 감추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했다.

영상에는 종교 사무국 직원이 직접 출연해 불법 종교 활동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장면이 담겼다.

‘광저우시 민족종교사무국’에서 발표한 ‘불법 종교 활동을 신고한 대중에 대한 포상 조치’에 따르면, 종교적 극단주의, 국가 안보 위협, 테러 활동 가담, 사회 질서 교란, 무허가 종교 활동 장소 설립, 무단 종교 교육 및 훈련 행위 등과 관련된 활동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에 따르면, 국내 종교단체와 관련된 불법 종교 활동 조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시민은 1천 위안에서 3천 위안(약 18만 원에서 55만 원)을, 외국 종교단체를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시민은 3천 위안에서 1만 위안(약 55만 원에서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정부가 이 정책으로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기독교 활동이 중국의 국가 안보나 문화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시민들이 기독교인 이웃을 범죄자로 취급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한복음 15:18-19)

하나님,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하 교회 활동을 신고하도록 장려하는 중국 정부의 박해 속에서 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예수께 속한 바 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소서. 교회 주변 이웃들의 마음을 먼저 주사 교회의 모임을 신고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지역 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 악한 제도를 무너뜨려 주시고, 오히려 세상의 미움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통해 중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길 기도합니다.

▲ 영국 기독교 단체, 거리 설교자의 표현 자유 위한 ‘거리 설교자 헌장’ 작성

거리 설교자들이 체포, 기소되고 있는 영국에서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경찰과 설교자 사이 합의된 이해에 도달하고 양측의 ‘모범 사례’를 장려하기 위해 ‘거리 설교자 헌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영국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사이먼 칼버트 부대표는 “우리는 거리 설교자 헌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부르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고 설교하도록 보장하고, 지역 교회를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에 글래스고 도심에서 전도하던 중 ‘동성애 혐오를 동반한 평화 위반’으로 체포됐던 설교자인 앵거스 캐머런은 스코틀랜드 경찰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받은 바 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에베소서 6:18-19)

하나님, 거리 전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 설교자 헌장’을 작성하기에 이른 영국의 만연한 세속화와 복음 듣기를 거절하는 실상 앞에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간구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세상 권세 앞에서 이 땅의 전도자들이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일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개인주의와 동성애의 죄악이 만연한 영국의 거리 곳곳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되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 프랑스·그리스·에스토니아 등 친(親)동성애 물결 일어

새해 들어 프랑스와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 유럽 주요 국가에 ‘친 동성애’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일 가브리엘 아탈(34) 교육장관을 총리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최연소 총리라는 타이틀뿐만 아니라, 프랑스 역사상 첫 동성애자 총리이기에 화제가 되고 있다. 그리스에서도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최근 동성혼 합법화 법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리스는 2015년 LGBTQ(내맘대로성별) 등의 성 정체성을 인정한 데 이어 2017년엔 동성 파트너십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앞서 에스토니아는 구소련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1일부터 동성혼을 합법화하며, 남녀 성 정체성 붕괴→동성 파트너십 인정→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지는 ‘성 혁명’ 수순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로마서 8:6-7)

하나님, 프랑스와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 유럽의 여러 나라가 육신의 생각대로 동성애를 장려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꾸짖으사 영원한 사망을 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거룩한 법에 굴복하지 않는 죄인의 반역을 오직 십자가로 고치실 수 있기에 이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런 악한 행보를 따라 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을 다스려 주시고, 유럽의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동성혼 법안이 효력을 잃고 이 땅 영혼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은혜를 주심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024 기독교 박해순위 1위 ‘북한’...박해 극심한 라오스 교회는 부흥



매년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를 발표해 온 한국오픈도어 선교회가 17일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 WWL)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10대 박해국은 북한(1위)에 이어 소말리아(2위), 리비아(3위), 에리트레아(4위), 예멘(5위), 나이지리아(6위), 파키스탄(7위), 수단(8위), 이란(9위), 아프가니스탄(10위)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2022년 한 해(1위 아프가니스탄)를 제외하고 22년간 박해순위 1위에 올랐다.

전 세계에서 3억 6,500만 명 이상이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시아 기독교인은 5명 중 2명, 아프리카 기독교인은 5명 중 1명, 라틴아메리카 기독교인은 16명 중 1명이 박해 국가에 거주했다.

또 최근 5년간 박해받는 기독교인은 계속 증가추세였다. 2020년 3억 1,000만 명, 2021년 3억 4,200만 명, 2022년 3억 5,900만 명, 2023년 3억 5,940만 명, 2024년 3억 6,650만 명으로 소폭씩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난민 또는 실항민이 된 기독교인이 증가했다. 전체 난민 또는 실항민 3,450만 명 중 기독교인은 1,620만 명으로 거의 절반(46.96%)을 차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요인으로는 외부 영향으로 강화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들과 독재 정권의 공존이 지목됐다.

교회에 대한 공격은 여전했는데, 특히 2023년 5월 인도 마니푸르주 임팔시에서 메이테이족과 쿠키족의 충돌로 36시간 안에 메이테이 교회 249개가 파괴됐다. 이는 메이테이 힌두 폭도들에 의해 파괴된 것이었다. 또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에서도 이슬람 반군에 의한 교회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2024 WWL’을 발표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사무총장 김경복 목사는 가장 박해가 악화된 나라는 라오스이지만, 오히려 라오스의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한 분석 전문가의 말을 전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목사는 이러한 박해받는 상황에서는 동반자적 선교전략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해 현장에 있는 교회가 선교를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선교에 적응하려면, 선교의 운전대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무슨 일에도 지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빌립보서 1:28-29)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주신 구원의 증거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열방의 교회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믿으며 박해를 이긴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난받는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 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사 선교 완성의 그 날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

▲ 리, 알코올 의존 진단 증가...우크라이나 전쟁 등 사회적 불안 영향

러시아에서 10여 년간 감소 추세던 알코올 의존 진단 사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러시아 연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규 알코올 의존 진단 사례는 5만 4,200명으로 2021년(5만 3,300명)보다 늘었다. 이는 12년 만에 처음이다. 2010-2021년 새 신규 알코올 환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 거의 3분의 1 수준(15만 3,900명→5만 3,000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반등했다. 전문가들은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 제재로 인한 사회·경제·외교적 변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알코올 소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기관 폼(FOM)은 2022년 10월 러시아인의 불안이 최소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인 70%에 달했다고 밝혔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시편 62:7-8)

하나님,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전쟁의 여파로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면서 술을 가까이하는 러시아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며 의지하는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유희와 쾌락을 더 즐거워하는 죄인의 심령이 힘든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그 마음을 허망한 데 두는 일을 그치고 시시로 주를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불안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힘입고, 전쟁의 종식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 아르헨티나, 1년 새 물가 3배 급등...국민들 절망

아르헨티나의 2023년 연간 물가상승률이 211.4%를 기록하고, 모든 물건 가격이 1년 새 평균 3배 이상으로 급등하며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도 암울하다는 점에서 아르헨티나 국민을 더 절망스럽게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전했다. 작년 12월 월간 물가상승률은 25.5%를 기록했고, 그 여파로 구매력이 가장 큰 시기인 12월 소비는 13.5%나 하락했다. 고물가가 이어지자 대부분의 주민은 외식비, 의류 구입비, 스트리밍 서비스, 헬스클럽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국적의 변호사 스테파니(30)는 고국의 가족에게 월급 일부도 보낼 수가 없다면서 “월급 구매력이 반토막 난 것 외에도 의료보험이 40% 급등했고 2월에 또 30%가 오른다니 의료보험도 끊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엎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시편 107:12-14)

하나님, 오랜 경제위기를 겪던 아르헨티나의 물가가 계속 급등하며 국민들의 시름과 절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바른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찾아 주소서. 이 같은 고통이 오히려 아르헨티나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며 의지하는 기회가 되어, 생계뿐 아니라 흑암과 사망에 묶여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때,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여 이 땅의 진정한 보호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옵소서.